

대부업계 저축은행 간판만 바꾸고 고금리장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A(27)씨는 최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중 저축은행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300만원을 빌리는데 무려 30%에 가까운 이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너무 높은 이율이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은행 규정이 그렇니 어쩔 수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해 무안을 당했다.

신용불량으로 더이상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B(52)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아버릴 요량으로 저축은행을 찾았으나 실망감만 갖고 돌아왔다. 저축은행의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는데 금리가 대부업체나 다름없이 높았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신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15~20%의 중금리 대출시장을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대형 대부업체를 인수한 일부 저축은행이 기존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OK·웰컴저축은행 등 중금리 대출상품 없고 25% 이상 대출 주력

지로 고금리 장사를 하며 서민을 울리고 있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2014년 말 기준 총 자산이 각각 1조1132억원, 7417억원으로 합병전보다 나란히 늘었다. 전체 저축은행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OK저축은행이 1년 사이에 1.2%에서 2.9%로, 웰컴저축은행은 1.4%에서 2.0%로 각각 올랐다.

광주와 전주, 익산에 3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OK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7월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회사다. 또, 웰컴저축

은행은 지난해 5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이 해솔·예신 저축은행을 인수해 법인명을 바꾼 회사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증가가 대출영업 확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고금리 대출영업에 집중한 결과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편 대부업체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을 뿐 25% 이상의 고금리 개인대출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12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가계신용 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연 25~30%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각각 99.0%, 98.1%였다. 대부업체 법정 상한금리인 34.9%보다는 낮지만 대부부분을 상한금리인 29.9% 내에서 고금리 대출영업을 했다는 뜻이다. 일부 저축은행이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중금리(9~19%)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영업을 확

대한 면도 있지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당국과 대부업체 쪽 대부자산을 5년간 40%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계열 대부회사의 대출을 저축은행 대출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들 고객에게는 39%에서 29.9%로 최대 약 10%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민 금융소비자들은 대부업체 저축은행이 간판만 바꾼 채 25% 이상 29.9%까지 대출 금리를 받는 것은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또 다른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강영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예금수신이 생겨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데도 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20.33 (+6.17) ▼ 금리 (국고채 3년) 1.86% (-0.01)
- ▲ 코스닥 699.27 (+7.04) ▼ 환율 (USD) 1090.50원 (-9.20)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은 1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용택 전북은행장, 김한 광주은행장,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기술 우수 중기 금융지원 확대

전북은행·기술보증기금과 ‘창조경제활성화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김한)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과 손잡고 광주·전남·북 지역 특화형 기술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광주은행·전북은행·기술보증기금은 1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전북은행은 각각 2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펀드를 조성하게 되며, 기술보증기금

은 보증지원 규모를 늘리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또, 기술 우수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금 보증비율을 90~100%까지 높이고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광주은행·전북은행도 대출금리를 최대 0.5% 우대하고 추가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기술창업 우수기업대출을 통해 최저 2%대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과 기술형 창업기업, 광주·전남·북 주력산업, 신성장 동력사업 기업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포스코, ‘사즉생’ 각오 경영 쇄신

비상경영쇄신위원회 발족

실추된 이미지 회복 주력

포스코가 최근 검찰수사 등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 쇄신위원회’를 14일 발족하고 대대적이고 구체적인 경영쇄신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비상경영쇄신위원회는 권오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포스코 사내이사 전원과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주요 5개 계열사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날 비상경영쇄신위원회 출범에 앞서 쇄신위원 전원과 전 계열사 대

표들은 권오준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해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경영 쇄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비상경영쇄신 위원회는 구조조정, 책임경영, 인사혁신, 거래관행, 윤리·의식 등 5개 분과위로 나눠 구체적인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 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사외이사들은 지난 4월 30일 ‘포스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제언’을 포스코 경영진에게 전달해 ▲구조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거래관행의 투명성 ▲무관용의 윤리 원칙 등 총 4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인 쇄신안을 요청했다.

/광영=박영진기자 pyi4079@

전기차하면 기아차 ‘쏘울 EV’

지자체 9곳 공모서 1위

1801대 중 737대 배정

서울·광주도 민간공모중



전기차 ‘쏘울 EV’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전기차 ‘쏘울EV’가 올해 전국 9개 지자체차량체가 시행한 전기차 민간 공모에서 판매량 1위에 올랐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주와 부산, 창원, 대구, 영광, 순천, 포항, 강릉, 춘천 등 올해 진행이 완료된 지자체 9곳의 전기차 공모 결과, 쏘울EV는 총 1801대 가운데 40.9%인 737대가 배정돼 가장 많았다. 로노삼성의 준중형 전기차 SM3 Z.E.는 613대로 2위에 올랐고 BMW i3(183대)는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닛산 리프(132대), 기아차 레이EV(105대), 한국GM의 스파크EV(31대) 순이었다.

쏘울 EV는 9개 지자체 중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민간 공모 대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에서 쏘울 EV는 전체 배정 물량 1468대 가운데 651대가 배정돼 가장 많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과 광주도 600여 대의 전기차 민간 공모를 진행 중이어서 쏘울 EV의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광주는

총 100대를 추첨할 계획으로 보조금은 최대 1800만원이다. 서울의 경우 6월 5일까지 접수하며 보급 대수는 510대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쏘울EV는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된 고속 준중형 전기차로,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여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다.

쏘울 EV의 가격은 4250만원이지만 기아차는 지자체 민간 공모에 한해 1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지역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민간 공모 대수가 가장 많은 제주도에서 쏘울 EV는 전체 배정 물량 1468대 가운데 651대가 배정돼 가장 많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관계자는 “1회 충전 때 주행거리가 148km로 공모대상 차량 가운데 가장 길뿐 아니라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의 보증기간도 경쟁 업체 중 가장 긴 10년 16만km를 제공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할인 이벤트

삼성전자 모델들이 14일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더운 여름 미리 준비 페스티벌’ 알뜰 구매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최대 50만원을 할인하는 이 행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삼전자 제공>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 - 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G에스골프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